미키 가문 주택은 후쿠사키의 저명한 오조야(에도시대의 지방관리)의 저택이자 정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. 부지 내에 처음 세워진 건축물은 16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, 단계적으로 건축이 계속되었습니다. 1874년, 새롭게 ‘이쿠노 광산료 마찻길’(현재의 ‘은의 마찻길’) 건설이 시작되자 집 앞의 땅이 1.8m 후퇴하게 되면서 정면 현관과 남쪽 담장이 신설되었습니다.

훗날 ‘일본 민속학의 아버지’가 되는 힉자 야나기타 구니오(1875-1962년)는 아직 어렸던 1885년에 이 저택에 맡겨졌습니다. 당시 11살이었던 야나기타 구니오는 미키 가문의 장서를 폭넓게 읽었는데, 이 경험은 그 후 그의 탐구심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.

1972년 미키 가문 주택은 효고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대규모 개수 때는 최대한 본래의 자재를 재이용해 안채를 복원했습니다.